

Robert Browning의 *Pauline*:

극적 독백의 출발점

고 경 하

I

1833년에 발표된 Robert Browning의 첫 작품인 *Pauline*은 뒤에 나오게 될 “My Last Duchess”같은 극적 독백 작품들과 너무 다른 것처럼 보여서 크게 주목하지 않고 시인 수업 과정의 첫단계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Browning 연구자들은 *Pauline*에 대한 J. S. Mill의 비판에 Browning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 주관적인 것을 일체 배제하려 노력하면서 그것의 대안을 모색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Pauline* 이후 10여년간 집중했던 극작 활동이 극적 독백의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함으로써 *Pauline*과 극적 독백 사이의 비약을 설명하고, 그 간격을 메우려 하였다.¹⁾ Mill의 평가가 Browning의 방향 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는 시인 개인의 창조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Masao Miyoshi는 정설로 인정되어온 *Pauline*에 대한 Mill의 비판의 실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Mill의 평가가 Browning에게 충격을 줄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시인 자신도 *Pauline*이 지닌 문제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말한다.²⁾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야 이 작품을 다시 발표한 것은³⁾, 작품의 자서전적 측면과 함께 이 작품이 예술적 완성도 면에서 많이 떨어진 실망스러운 것이고, 시인 자신이 믿고 느끼는 바가 잘 표현되지 못했다는 인식때문이지, 흔히 얘기되는 것처럼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⁴⁾ 다시 말해 시인은 이 작품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느꼈던 것이다.

- 1) 특히 Norton B. Crowell, *The Convex Glass: The Mind of Robert Browning*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68), *A Reader's Guide to Robert Browning*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72); David W. Shaw, *The Dialectical Temper: The Rhetorical Art of Robert Browning* (Ithaca: Cornell Univ. Press, 1968); F. E. Halliday, *Robert Browning: His Life and Work* (London: Jupiter Books, 1975); Donald Thomas, *Robert Browning: A Life within Lif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82) 등이 이런 입장이다.
- 2) Masao Miyoshi, “Mill and ‘Pauline’: The Myth and Some Facts,” *Victorian Studies*, 9 (1965) 162.
- 3) *Paulin*은 1868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출판되었고, 1888~1889년에 다시 수정한 것이 발표되었다. 이 글에서는 Ian Jack이 편집한 *Browning: Poetical Works 1833~1864* (1970; London: Oxford Univ. Press, 1975)에 부록으로 수록된 1883년 판을 텍스트로 하였다. 1868년의 개정판은 내용상의 큰 변화없이 초판의 모호한 표현과 문장 부호들을 수정하여 내용 이해에 더 용이하도록 만들었지만 30년대 당시의 Browning의 상태를 본다는 의미에서 초판을 선택하였다. 이후로는 괄호 안에 작품의 행수만을 표시한다.
- 4) 이런 점은 시인 자신이 *Pauline*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Mill에게 보냈던 copy에 쓴 Browning의 자기 비판은 Crowell, *A Reader's Guide to Robert Browning* 5-6 참조.

작품의 구조 상의 문제나 표현상의 모호함, 불분명한 형상화 등에서 볼 때 이 작품이 Browning의 다른 걸작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단순히 실패한 작품이라 하여 평가를 끝낼 것이 아니라 낭만주의시대에서 빅토리아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보여주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즉 만일 이 작품이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은 일면 불가피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My Last Duchess”처럼 시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그리지 않고, 시인 자신과 거의 흡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을 화자로 선택함으로써 철저한 객관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투영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비평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낭만적 서정시의 아류로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시인의 의도는 극적인 것이었고, 작품 자체도 이런 측면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Pauline은 “My Last Duchess” 같은 완성된 극적 독백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시인의 모색 과정과 변화의 증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용의 차원에서 이 작품은 낭만주의 시대의 시를 읽고 성장하였으나 다른 시대 안에 놓인 자신을 발견한 시인의 혼란과 방황, 암중 모색의 성실한 기록이며, 아직도 시대착오적으로 낭만적 서정시인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패로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Richard D. Altick은 초기 빅토리아시대, 특히 1830년대들, 낭만주의시대의 에너지는 고갈되었으나 아직 새로운 시대의 활력은 나타나지 않은 일종의 과도기로 파악한다.⁵⁾ 변화와 과도기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이었으며, 그중에서도 문학과 예술의 미학과 실행의 차원에서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은 이전 세대의 낭만주의가 표방하는 것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반발하고, 그런 경향을 배척하였다. 특히 Byron과 Shelley의 시와 삶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탄핵되어 마땅한 것이었으며, 낭만적 주관주의는 18세기의 계몽주의적인 취향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또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상상력의 문학을 무익한 것으로 공격하고, 복음주의는 감각주의적인 미학을 공격하였으며, 이러한 태도는 ‘도덕적’ 미학의 탄생으로 전면에 나타난다.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은 낭만주의에서 특히 무절제한 자기 감정의 표출을 싫어했는데, Byron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낭만주의자들의 주관주의는 건강치 못한 극단으로 흐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⁶⁾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각했으며, 새로운 사상과 이념의 등장으로 그들의 삶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시인이 자기 정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며, 개인적·심정적으로는 공감하고 이끌리면서도 뒤에 의식과 사회의 차원에서 비판하게 될 낭만주의——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공격의 화살을 집중했던 무절제한 낭만적 서정주의——에 대한 이중적 태도때문에 그 작업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다. 아직 자신들의 이념이나 시학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Tennyson이나 Browning 등은 그들의 새로운 도덕적 취향의 관점에서 이전 세대 시인들의 삶과 문학을 평가했다. 이들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작품에서, 그리고 특히 그들의 인생에서 낭만적 상상력과 주관주의, 이상에의 동경이 동반하는 고립과 광기, 방종 등에 주목했고, 새로운 도덕적 관점으로 자기 시대를 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전 시인들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었다. 자신들이 심취했던 미학과 시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자신

5) Richard D. Altick, *Victorian People and Ideas* (New York: W.W. Norton & Co., 1973) 2,

6) 같은 책 1-11, 73-74, 269-78,

들이 나아갈 방향은 아니라는 인식에 이르는 했지만, 그것의 대안은 발견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태가 바로 *Pauline*을 쓸 당시의 Browning이 처한 난관이었으며, 이 작품은 이 혼란을 나름대로 정리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II

혼란스럽고, 지나친 자의식의 기록으로 보이는, 그리고 그렇게 평가되는 이 작품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먼저 Browning이 이 작품을 어떤 입장에서 쓰고 있으며, 어떻게 읽히도록 의도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시인의 의도가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제대로 형상화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작품을 훌륭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인이 극적인 것으로 읽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을 무시하고 그의 자기 감정 표출로 읽고 잘못된 작품이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작품 읽기라 할 수 없으며, 작품의 형상화를 논하기에 앞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J. S. Mill을 비롯하여 이후의 비평가들은 대부분 *Pauline*에서의 시인의 어조를 진지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의 지나친 자의식의 표현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작품에 들어 있는 몇가지 장치들은 시인이 작품으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으며, 그가 화자를 통하여 낭만적 서정 시인을 패로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으면, 작품의 지나친 감정 표출과 자의식이 단순히 시인의 낭만적 고백이 아니라 그러한 당대 젊은 시인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풍자라는 사실과, 비록 작품에 낭만적 서정시에 흠취했던 Browning 자신의 고민과 갈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그가 자신의 낭만적 추구하고 좌절을 거리를 두고 풍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rowning이 낭만적 서정시인의 꿈과 희망의 좌절을 진지한 고백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물을 풍자적인——부분적으로는 자조적인——어조로 비판하고 있다는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이 811행에 붙어있는 *Pauline*의 주석 부분과 작품의 마지막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Pauline*에게 함께 상상 속의 자연으로 가자고 말한다. 그런데 화자가 말하는 그곳은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사방이 숲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은신처로서, 화자의 현실도피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비현실적인 공상의 세계의 묘사가 끝나자마자 *Pauline*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붙어 주석에서 화자의 과도한 낭만주의적 성향이 비판되고 있다. 이 주석은 분명히 작품의 일부이며, 여기에서 Browning은 *Pauline*을 통해 화자를 비판하고 있다. 즉 화자와 같은 경향의 시와 시인에 대해 Browning이 얼마나 거리를 두고——혹은 두려고 애쓰고——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 비판은 Browning이 다른 극적 독백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객관적 입장에서 하는 확신에 찬 것은 아니며 어느 정도 자기 비판이 섞여 있기도 하다.⁷⁾ 하지만 화자의 이 묘사 부분에 대해, 더 나아가 작품 전체에 대해 명백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주석은 당시의 Browning의 의식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자신의 내부에 있는——그가 부정적으로 파악한——낭만주의적 성향을 극복하려 하는 그의 의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가 시를 쓸 당시의 자신의 성향과 앞으로 추구할 시의 방향 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모색하고

7) Ian Jack은 이 주석을 자기 비판과 변명으로 보면서도, 이것이 작품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고 한다. *Browning's Major Poet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73) 19. 이에 대해서는 Masao Miyoshi도 유사한 입장이다, Miyoshi 163.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주석의 어조나 내용으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unpretending opening, this stir of passions which go on at first increasing and then by degrees subside, these outbursts of the soul, this sudden return upon himself, and above all, the turn of mind quite peculiar to my friend, have made alterations almost impossible. The reasons he urges elsewhere, with others more powerful still, have found grace in my eyes for this work, which otherwise I should have advised him to throw into the fire. I believe none the less in the great principle of all composition,—in the great principle of Shakespeare, Raphael, and Beethoven,—from whence it follows that concentration of ideas is due much more to their conception than to their manner of execution: I have every reason to fear that the first of these qualities is still foreign enough to my friend, and I doubt very much if redoubled labor would enable him to acquire the second. It would be best to burn this; but what can I do?⁸⁾

위와 같은 *Pauline*을 통한 화자 비판의 형식은 Browning의 단순한 자기 비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화자가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낭만주의를 극복하려는 모습과 이러한 화자의 방향과 좌절, 그리고 원점으로의 회귀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인의 모습에서 이 작품이 낭만적 서정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작품 내용을 Browning 자신의 방향으로 읽고 있는 독자에게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물론 그의 과거와 증첩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주석을 포함한 *Pauline*을 쓴 Browning은 화자와는 다른 상태에 있으므로—*Pauline*이란 애인을 가진 어떤 다른 시인-화자의 이야기라고 함으로써 작품 전체에 일종의 틀을 씌워 화자를 시인과 분리하고 있다. 이 주석은 ‘FERARA’와 같은 일종의 題詞인 셈이다. 그리고 “My Last Duchess”가 한 공작이 교섭중인 혼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는 가운데 자신의 사악한 성격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듯이 이 작품도 낭만주의를 추종하면서도 벗어나려고 하는 동시대의 한 젊은 시인이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낭만적 서정시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나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해로운 것인지를, 그리고 현 시점에서 얼마나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하는가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인의 모습이 Browning 자신의 입장과 너무 밀착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화의 시도는 쉽게 무시되곤 하는 것이다.

객관화의 시도는 시의 마지막에도 잘 드러나 있다. 낭만적 이상에 대한 희망과 믿음으로 가득 찬 미래를 상상하면서 Sun-treader에 대한 기구로 끝맺고 있는 결말은 수 많은 전환과 모색, 고민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젊은이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Browning은 다시 한 번 정신적 딜레마에 빠진 이 화자가 시인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는 극적 장치를 이용하고 있다. 화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마지막 3행과 집필 일자와 장소의 기록에서 Browning은 그의 시가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를 제시하고 있다.

All in whom this wakes pleasant thoughts of me,

8) George Willis Cooke의 번역. *A Guide-Book to the Poetic and Dramatic Works of Robert Browning* (Boston and New York, 1896) 286. Miyoshi 162-63에서 재인용.

Know my last state is happy—free from doubt,
Or touch of fear. Love me and wish me well! (1029-31)

Richmond:

October 22, 1832.

Herbert F. Tucker, Jr.는 마지막 3행에서 화자는 독자가 아니라 Sun-treader에게 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⁹⁾ 그러나 집필 일자와 장소로 제시한 것이 Browning이 당대의 유명한 연극배우 Edmund Kean의 *Richard III* 공연을 관람한 사실을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할 때, Browning이 Shelley에 대한 대안으로 Shakespeare를 염두에 두는 등 극적 방식으로의 전환이 *Pauline*을 쓸 무렵 이미 진행중이었으며, 당시의 Kean의 공연 관람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화자는 마치 연극이 끝날 때 배우가 관객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John Maynard의 관점이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¹⁰⁾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여 Browning은 이전 세대의 낭만주의 시의 영향 속에 자란 자신과 같은 젊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시의 안과 밖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의 화자는 급진적 이상론과 절대 세계에 대한 추구, 상상력에 대한 믿음에 빠져 있는 당대 젊은이의 전형이라 할 수 있고 Browning 자신의 일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가 바로 시인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은 작품 외적인 맥락에서 볼 수도 있다. Browning은 나중에 이 작품을 다시 발표하면서 *Pauline*의 화자도 다른 극적 독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다른 인물이라고 밝히고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시인의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Browning의 작품 전체가 극적인 것인데 이 첫 작품에서만 Browning이 예외적으로 서정적인 고백을 했겠는가하는 점이다. Browning이 완성된 형태의 극적 독백 작품인 “Madhouse Cells”를 쓴 것이 1834~1835년인데, 낭만적 고백인 *Pauline*을 쓴 지 불과 2년만에 그렇게 ‘극적인’ 전환을 이루었다는 주장이 과연 이치에 닿는 것인가에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¹²⁾ Browning은 자신과 거의 유사한 성장 과정과 고민을 가진 화자의 낭만적 고백 형식으로 쓰면서도 분명히 화자와 거리를 두기 위하여 극적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대부분 그냥 지나쳐왔는데, 화자가 시인과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다른 극적 독백처럼 뚜렷하게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와, 시에 나타난 목소리를 당연히 시인의 것으로 간주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과 이 작품을 낭만주의적 습작으로 보는 경향때문에 Browning

9) Herbert F. Tucker, Jr., *Browning's Beginnings: The Art of Disclosure* (Minneapolis: Univ. of Minnesota Press, 1980) 30.

10) John Maynard, *Browning's Youth*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7) 221-29.

11) 작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은 아니지만, *Pauline*에 자서전적 요소가 많음을 인정하더라도, 화자와의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되새겨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Pauline*] was my earliest attempt at ‘poetry always dramatic in principle and so many utterances of so many imaginary persons, not mine.’” Ian Jack, *Browning's Major Poetry* 18에서 재인용.

12) “Madhouse Cells”라는 한 제목으로 묶이는 “Porphyria's Lover”와 “Johannes Agricola in Meditation”은 원래 1834~1835년에 같이 쓰여져서 1836년 1월 *The Monthly Repository*에 함께 발표되었고 1842년에 *Dramatic Lyrics*에 수록되었다. Ian Jack, *Browning's Major Poetry* 7. 이 작품들과 *Pauline*사이의 집필 시기의 차이를 주목해야 할 것이다. 1832년 혹은 1833년까지 낭만적 서정시에 빠져 자기 고백을 하던 시인이 불과 1,2년 사이에 완전한 극적 독백 작품을 쓰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영감에 의한 시인의 ‘극적인’ 변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의 이러한 호소는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¹³⁾

작품 내의 화자의 어조나 고백이 낭만적 서정시인에 대한 페로디라는 점은 알아보기 쉽지 않다. 그것은 이 작품이 Browning의 다른 극적 독백들과 마찬가지로 시인의 목소리는 배제된 채 인물의 관점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My Last Duchess”나 “Porphyria’s Lover”처럼 이 작품도 인물의 관점에서만 기술되어 있고, 그와 다른 시인의 관점은 주석과 작품 끝에만 암시되어 있기에 이 작품을 유사한 성장 과정과 갈등을 겪은 Browning의 고백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Browning이 페로디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 곳곳에 드러나 있으며, 이런 점들은 그가 화자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페로디로서 가장 명백한 부분을 찾는다면, 아마 Pauline의 논평을 유발한 부분일 것이다.

Pauline, come with me—see how I could build
A home for us, out of the world; in thought—
I am inspired—come with me, Pauline!

.....

.....see this our new retreat
Walled in with a sloped mound of matted shrubs,
Dark, tangled, old and green—still sloping down
To a small pool whose waters lie asleep
Amid the trailing boughs turned water-plants
And tall trees over-arch to keep us in,
Breaking the sunbeams into emerald shafts,
And in the dreamy water one small group
Of two or three strange trees are got together,
Wondering at all around—as strange beasts herd
Together far from their own land—all wildness— (729-31, 749-59)

화자는 돌만의 보금자리를 자신의 상상 속에 이렇게 꾸며 놓았지만, 그 낭만적 목가풍의 자연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의 고통을 절규한다. 그의 영혼이 다시 현실로 눈을 돌릴 때, 그는 절망에 빠지는 것이다.

But my soul saddens when it looks beyond;
I cannot be immortal, nor taste all.
O God! where does this tend—these struggling aims! (809-11)

이런 부분은 낭만적 서정시인이 영원한 상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에서 어쩔 수 없이 깨어났을 때 느끼는 환멸과 좌절감의 상투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감정적 호소를 하는 화자와 Pauline의 불어 주석을 쓴 사람이 같은 목소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석 등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화자의 상태는 Browning의 과거가 포함된 것일 수는 있어도 그의 현재의 모습을 고백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외에도 작품 곳곳에서 화자는 낭만적 서정시인의 추구하고 좌절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13) John Maynard는 다른 비평가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Pauline을 훌륭한 작품이 못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는 이 작품이 의도는 극적인 것이었으나 형상화에서 실패했다고 본다. Maynard 223.

Oh, Pauline! I am ruined! who believed
 That tho' my soul had floated from its sphere
 Of wide dominion into the dim orb
 Of self—that it was strong and free as ever:— (89-95)

무한한 가능성과 권능을 가진 영혼이 현실에서는 자아의 영역 안에 갇힐 수 밖에 없음을 한탄하면서 화자는 영혼과 자아 사이의 고전적인 투쟁 속에 놓인 것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는 꿈 속에서 현실에서의 절망을 벗어나 잠시 기쁨을 맛보지만, 다시 현실의 억압과 절망 속에 고통받아야 하는 운명을 한탄하면서 다시 상상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이 작품의 구조이다.

낭만적 상상력의 힘을 믿는 상태에서 화자는 'Sun-treader'라는 시인상을 설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이상과 믿음, 비전을 투영한다. 그는 인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들을 믿으며 그들에게 희망과 염원을 보내는 시인으로서, 화자에게 이 Sun-treader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으로, 그에게는 시인의 말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로, 천사의 속삭임, 새로운 계시로 보이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에게는 유쾌한 임무이다. 그리고 그 시인의 선도로 화자는 그의 유토피아적 비전에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맹세한다.

I was vowed to liberty,
 Men were to be as gods, and earth as heaven.
 And I—ah! what a life was mine to be,
 My whole soul rose to meet it. Now, Pauline,
 I shall go mad, if I recall that time. (424-28)

이런 원대한 꿈을 꾸었던 그 시절과 이를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게된 지금을 비교하면 그는 미쳐버릴 것 같은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 눈을 돌리지만, 그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포기하게 되는데, 이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화자는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갔다한다. 이러한 상상력에 대한 지나친 몰입과 그에 수반한 자기 환멸, 그리고 다시 고양된 희망과 환희 등 감정의 극과 극 사이를 진동하는 소모적인 태도가 바로 빅토리아조 시인들이 지적하는 낭만적 서정시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며, **Browning** 자신이 겪었던 과정이기도 한데, 시인은 화자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충실히 기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쳐버릴”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런 낭만적 이상에의 몰입과 지나친 자의식이 위험한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완전성에 대한 갈망을 버리고 옛날의 *egoism*으로 돌아감으로써 낭만주의적 이상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환멸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심화되어 악마적인 상태, 무심하고 방관적인 상태에 이르기도 한다(469-96). 바로 이런 점은 도덕적 미학의 관점에서 낭만적 서정주의를 파악한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비판했던 점이기도 하다.

화자는 자신의 영혼에 저항하기도 하고, 또 영혼의 무한한 갈망을 기뻐하는가 하면, 육신 속에 갇힌 유한자로서의 운명을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Pauline**에게 이런 고통스런 현실을 떠나 들만의 보금자리로 가자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Browning**은 **Pauline**의 주석을 통해 이전 세대의 시——그에게는 주로 지나친 감정 표출과 자기 중심적인 면이 두드러진 낭만적 서정시——를 비판하고 그의 시대의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낭만적 서정시를 벗어나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한 번 암흑의 절망 속에 빠져 들면서 화자는 Pauline이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한다.

And then thou said'st a perfect bard was one
Who shadowed out the stages of all life,
And so thou badest me tell this my first sage;— (883-85)

여기에서는 화자도 현 상태를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첫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점은 Browning의 습작 단계와 흡사한 것으로 둘이 동일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화자는 시인의 과거의 잔영일 뿐이다. '모든 삶'은 인간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은 시인의 내면만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 세계를 통찰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Browning은 이런 입장에서 삶의 일부로서 서정시인의 모습을 객관화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Browning이 제시하는, 그리고 그가 평생을 두고 추구하게 될 대안이며, 작품 *Pauline*은 모든 삶의 단계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Browning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시 절망에 빠진 화자가 신을 갈망하고, Pauline에게 기대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내면을 들여다 보지 않겠다는—부분적이거나 올바른 방향으로의—결심을 보여주는 맹세와 기원으로 작품을 끝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고백은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낭만적 서정시인의 추종자의 암증모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Browning은 단순히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의 서정시를 그대로 답습했을 때의 딜레마를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아주 뛰어나게 '극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어도, 다른 극적 독백들처럼 객관적 시·공간 속에 놓인 인물의 내면 세계를 그의 입을 통해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III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Pauline*은 젊은 낭만주의적 서정시인의 방황을 그린 작품이며, 표현 방식 또한 한 세대 전의 시에서 흔히 보는 것과 같은 이국적 풍경과 목가적 자연 묘사와 신화의 비유, 혹은 상투적인 묘사와 감정의 토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빅토리아시대 사람들이 파악한 낭만주의 시인 및 시의 부정적인 모습이다. Browning은 점차 제 모습을 형성해가는 빅토리아시대의 일원으로서 한 세대 전의 시인과 시를 비판적으로 보고 그것을 낭만적 서정시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낭만주의적 서술 구조를 극적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은 자신의 목소리—자신이 의식하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를 찾으려고 애쓰는 빅토리아조 시인의 모습이다. 이런 점에서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것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시인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는 경향이다. 이런 경향은 낭만주의시대에 성행했던 장르인 고백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며, Browning이 나아갈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짐작케 한다.¹⁴⁾ 화자 자신도 중간에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겠다(I

14) Constance W. Hassett은 '고백'의 성향이라는 공통의 개념으로 *Pauline*과 극적독백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The Elusive Self in the Poetry of Robert Browning* (Athens: Ohio Univ. Press, 1982) 1-3. 고백은 낭만주의의 중요한 형식이기도 하고 Browning이 이런 경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의 근본적인 낭만주의적 성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Pauline*에서 시작하여 극적 독백에 이르기까지 Browning의 고백들은 시인 내부의 절대적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객관 세계의

will tell/My state as though 'twere none of mine——' 585-86)고 하는데, 이는 작품 전반에 걸쳐 Browning이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낭만적 이상에 대한 환희와 좌절의 반복이 계속되는 작품 구조 자체도 이 작품이 지향하는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낭만적 이상이 주는 환희와 환멸이라는 내용은 낭만주의 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므로, 그 자체가 낭만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화자가 보여주는 갈등의 반복은, 화자가 Sun-treader의 믿음과 비전이 상상의 세계에서는 영광이요 진리이지만, 그것을 내면화하여, 같은 방식으로 시를 쓰는 것을 포함하여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말해준다. 나이브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화자가 그러한 꿈이 덧없는 것임을 깨닫는 부분도 있다. (440-49)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화자는 그 이상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화자 자신도 먼 훗날 이 시를 부정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어진다('And I be first to deny all, and despise/This verse, and these intents which seem so fair;' 991-92).

*Pauline*을 쓰면서 Browning이 생각하고 있던 바,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표현할 새로운 형식은 이 작품을 초기 극적 독백 작품들인 "Madhouse Cells"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 Browning이 작품 내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그가 Sun-treader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던 새로운 방향은 나중에 그가 "Essay on Shelley"에서 객관시인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세계의 모든 단계를 기록하는 시인이며,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때에도 객관화시키는 것이다.¹⁵⁾ Browning이 "Madhouse Cells"에서 훨씬 더 성공적으로 극적 방식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그가 *Pauline*에서보다 화자와 더 거리를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Madhouse Cells"에서 Browning은 정신병(편집증) 환자의 의식으로 된 진술을 통하여 그의 의식에 의한 경험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하나의 목소리로 보여주는 다의적 언어를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개인의 믿음과 실천 사이의 괴리,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 대한 첨예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더 이상 개인의 내부 세계에 대한 탐구와 주관적인 관점이 순수하게 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개인의 진술에는 언제나 결과 다른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통찰이 들어 있는 것이다. 단일한 진리에 대한 믿음도 나름대로의 논리와 질서를 가진 다양한 목소리들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따라서 시인은 외양과 실제의 차이를 포함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Madhouse Cells"에서 극단적인 상황의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Browning은 화자와 시인의 분리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작품들이 시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장치를 동원한다고 해도 시인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매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 그는 자신의 생각을 여러 겹의 가면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작품이 표방한 관점이나 주제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아이러니의 효과를 통해 그가 비판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바, 시인의 숨은 의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어떤 쟁점에 대한 시인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상대적 관점들에 대한 여러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5) *Browning: Poetry and Prose*, ed. Simon Nowell-Smith (London: Rupert Hart-Davis, 1950) 671-72).

더 중요한 것은 극적 독백 형식 자체가 보여주는 시인의 세계관과 언어관이다. 즉 시인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과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Browning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생각, 이상, 의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이다. 그리고 이런 괴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작중 화자의 의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이며, 또 하나는 화자의 목소리와 시인의 목소리 사이의 괴리이다. 그런데 이런 이중의 괴리가 *Pauline*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독자가 명백한 아이러니를 볼 수 있을 만큼 시인이 화자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기 힘들었고, 그 때문에 당시의 관습에 따라 낭만적 고백으로 읽혔던 것이다.

*Pauline*이 “My Last Duchess” 같은 극적 방식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읽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 작품은 극적 독백으로서 뛰어난 작품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구조나 형식은 같은 방식이지만, 독자에게 재미와 감탄, 통찰력과 아이러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걸작들같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은 극적 독백으로서의 *Pauline*의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IV

폭넓은 역사적 전망에서 보면 미미한 것일지 모르지만 빅토리아조 사람들은 19세기 초반과는 시대 상황이 바뀌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함께 사고방식, 이념, 가치관, 정서의 측면에서도 변화가 수반하고 이는 기존 가치 체계의 붕괴와 혼란으로 확실한 것이 없는 상태로 이어졌다. 따라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 등 시인이 말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했다. 사실 1830년을 전후하여, 영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겪고, 그 변화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명백한 것이었다.¹⁶⁾ 문예사조 상의 시대 구분을, 몇몇 대표 작가의 등장이나 작품의 발표 시기, 형식상의 변화의 등장을 기준으로 한 편의상의 구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문학과 예술이 근본적으로 현실 내의 인간의 삶과 사고, 감정의 표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반 역사적 상황의 변화가 문학과 예술에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초래했다는 생각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 작품의 창조가 전적으로 작가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수정을 요구한다. 물론 어떤 작품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은 작가 자신이지만, 그 작가가 특정한 주제와 내용을 특정한 형식으로 쓰게 되는 데에는 그가 처한 역사적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시대에 발생한, 혹은 크게 유행한 문학형식의 발달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작가가 그 시대 고유의 감수성, 이념, 세계관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의 시대가 요구하는 시를 찾기 위하여 Browning은 자기 내부의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그리고, 시인과 동일시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인물을 설정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대개는 독자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시인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여겨지는, 모호하고 뒤틀린——신념과 정서를 표명하도록 한다. 이

16) G. M. Young, *Victorian England: Portrait of an Age*, 2nd ed. (1953; Oxford: Oxford Univ. Press, 1977) 문학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11-16 참조.

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시인과 화자, 화자와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 아이러니로써 시인은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을 하고, 간접적으로 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극적 독백의 발생이 가지는 의미는, 이것이 Tennyson, Browning 등이 이전 세대 시인들과 다른 감수성을, 그들과 다른 내용과 어투로 표현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즉 극적 독백 형식 자체와 그것의 형성은, 낭만주의시대에 자랐지만 이제는 달라진 세계에 살고 있는 시인의 감수성과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는 낭만주의 시와 구별되는 것을 만들려고 한 빅토리아조 시인들의 노력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극적 독백은 일부 시인의 천재적 창안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시대의 변화가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 정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극적’인 것을 채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극적 독백 탄생에 대한 이론은 다분히 Browning 개인의 천재성의 측면에서 문학형식의 창조를 설명해왔다.¹⁷⁾ 그러나 극적 독백의 탄생은 Pauline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Browning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반동이라거나, 그가 극작 활동을 하면서 얻은 기술과 테크닉 차원으로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있다.

Browning의 극적 독백 형식의 개발을 개인의 창안으로 신비화하는 경향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거기에 내재하는 시인 개인의 취향에 의존하는 우연성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당대 독자들에게——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받아들여지게 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문제는 왜 특정한 시들을 당대 독자들이 자기들의 이념과 미학에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가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극적 독백과 같은 문학 형식의 개발을 시인의 창조성과의 연관에서만 파악하는 경향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인이 형식상의 실험을 하는 때에는 개인의 창안만큼이나 역사적 상황과 시대 조건의 변화와 그에 따라 이 변화를 담을——표현수단과 내용 등을 포함한——새 어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시인의 의식적·무의식적 깨달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Loy D. Martin에 의하면 기존 시의 관습이 현실의 경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변화했을 때 전통적 시의 관습과 시인의 언어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시의 관습 혹은 어법이 등장한다고 주장한다.¹⁸⁾ 역사적 관점을 통해 시 형식의 개발을 설명하는 이런 이론의 도움으로 우리는 Browning이 왜 그 때에 극적 독백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이해와 과도기의 문학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극적 독백이 당시 유행하던 monodrama나 의인법(propsopeia)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¹⁹⁾, 당시의 연극과 문학의 경향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²⁰⁾ 그러나 이런

17)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Harold Bloom은 특히 Shelley의 영향에 대한 Browning의 자의식적 반응이라는 심리적인 면에 관심을 집중하였고, 이런 그의 이론은 이후 Browning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8) Loy D. Martin, "Literary Invention: The Illusion of the Individual Talent," *Critical Inquiry*, 6, 4 (1980) 649-67.

19) A. Dwight Culler, "Monodrama and the Dramatic Monologue," *PMLA*, 90 (1975) 366-85.

20) Michael Mason, "Browning and the Dramatic Monologue," in *Robert Browning*, ed. Isobel Armstrong (Athens: Ohio Univ. Press, 1975) 231-66.

요소들은 시인이 낭만주의의 대안으로 삼을 다양한 선택 요소들 중 일부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Browning이나 Tennyson 같은 시인이 낭만주의 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목소리를 찾으려 했으며, 그 방향이 극적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이 작업은 많은 방황과 다양한 모색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아직 미숙하기는 하지만 *Pauline*의 내용과 구조의 처리에서부터 그 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작업이 개인의 창조라는 낭만적인 차원이 아니라 Browning과 같은 세대의 젊은 시인들에게 부과된, 그리고 것처럼 선구적인 시인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시대의 과업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Pauline*은 빅토리아시대 영시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